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식품에 대해 수입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말레이시아

- 가금류, 계란, 돼지고기, 어업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는 대부분의 식품 수입에 의존
-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요 식품의 자급률은 다음과 같음
 - 쌀 70%, 채소 46.6%, 소고기 23.9%, 양고기 11.2%, 유제품 5%, 과일 79%
- 식품 수입의존으로 인하여 매년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
- 코로나 사태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지 식품 공급망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문가 지적
- 코로나로 인한 이동통제명령(MCO) 초기에 국내 식품 공급망에 많은 문제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통해 생산, 물류, 농산물 유통이 큰 타격을 받음
- 2019년 글로벌 식품 안전 지수에 따르면,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113개 국가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, 주변 국가들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
 - 싱가포르 1위, 태국 52위, 베트남 54위, 인도네시아 63위, 필리핀 64위
- 말레이시아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농업분야 R&D에 대한 공공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
- R&D 혁신의 전반적인 부족, 저조한 기계화, 지속 불가능한 농업 관행 등의 문제 상황에 더하여, 기온 상승, 날씨 변화, 홍수, 해충 등의 문제로 앞으로 수년간 식량 수확량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

* 출처 : 2020년 6월 19일, The Star

2. 2024년까지 신선 우유 자급자족 100% 달성 목표

- 말레이시아 정부가 향후 5년간 신선 우유, 쌀, 반추동물의 생산에 있어서 '자급자족 수준'(SSL)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, 2018년 11월 기준 자급자족도 신선 우유 50%, 쌀 70%, 반추동물 24% 수준을 각각 100%, 75%, 30%로 끌어올려 수입 의존도를 낮출 계획임을 밝힘
- 특히, 신선 우유의 경우 2024년까지 완전 자급자족 수준으로 달성하여, 연간 6천 5백만 리터에 달하는 생산량을 국내에서 감당하겠다는 계획
-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유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지 농가와 네덜란드의 농민들 간의 전문성 교환 프로그램인 '파머투파머'(Farmer2Farmer) 프로그램을 개시
-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식품 기업 '로얄 프리슬란트 캠피나 NV'의 낙농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, 네덜란드 대사관의 지원 하에 'Dutch Lady Malaysia'와 말레이시아 수의서비스국(DVS) 간 스마트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임
- Farmer2Farmer 론칭 행사에 참석한 주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대사관 Karin Mössenlechner 대사는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가 많은 공통점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으며, 농산물과 유제품 생산 분야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라면서, 지식과 기술,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Farmer2Farmer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했음
- Farmer2Farmer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농장의 생산성과 생산 방법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말레이시아와 네덜란드 양국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협력하고 산업을 개선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

* 출처 : 2020년 6월 11일, NST & Bernama

3. 코로나19 기간 인도로부터 쌀 수입 급증



- 미얀마, 베트남, 캄보디아 등 주요 쌀 공급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내수용 확보를 위해 쌀 수출에 소극적인 가운데, 말레이시아의 인도쌀 수입 물량이 증가
- 인도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, 말레이시아는 지난 5년간 인도로부터 매년 평균 5만3천 톤의 쌀을 수입해 왔으며, 지난해에는 8만 6,292톤을 수입
- 인도 쌀수출협회에 따르면, 인도로부터 말레이시아의 쌀 수입은 올해 2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말레이시아는 5월과 6월 선적을 위해 인도와 10만 톤의 쌀 수입을 계약
- 마하티르 전 총리의 인도 비판으로 인해 무역 마찰이 발생하였으나 지난 2월 사임하면서 양국은 유대 관계를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
- 타국의 경우 톤당 쌀 가격이 약 450달러에 달하지만, 인도는 현재 톤당 약 390~400달러의 저렴한 가격에 제공
- 미얀마, 베트남, 캄보디아에서 쌀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유 쌀수입회사인 Bernas가 인도로 시장 다변화
- 말레이시아에 대한 세 번째로 큰 쌀 공급국가인 베트남은 3월 말 수출 중단, 4월 공급 제한에 이어 5월 수출을 재개

* 출처 : 2020년 5월 15일, News18 India

4. 이동통제 기간 SNS,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밀수품 거래 성행

-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통제 명령(MCO)과 집행기관에 의한 국경 지역 및 고속도로에서의 엄격한 감시에도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불법 무역 공급망이 여전히 성행
- 비정부기구 소비 무역 브랜드 보호기관(RTBA ; Retail and Trade Brand Advocacy)에 따르면, 말레이시아 내 불법 거래는 코로나19로 인한 당국의 더욱 강화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더욱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
- 이동통제명령(MCO) 기간 동안 담배 제조가 필수 품목 사업으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합법적인 제조업체를 통한 공급이 중단되어 불법 담배의 수요가 증가
- 밀수 조직들은 전자상거래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을 높이고, 제품 배송을 위해 배달앱 또는 택배 서비스를 사용함
- RTBA에 따르면, 불법 담배 거래로 인한 말레이시아의 연간 손실은 50억 링깃 이상
- ‘아시아-태평양 지역 불법 담배 : 원인 및 해결책’ 보고서에 따르면, 2017년 19곳의 모니터링 시장에서 총 세금 손실이 미화 58억 달러를 넘어섰으며, 이중 50%가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어 있음

* 출처 : 2020년 6월 9일, The Edge Market

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□ 말레이시아 수입/수출 라이선스

- 모든 수입/수출 물품에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의 라이선스 제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해 둔다면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음
- 라이선스가 필요한 물품의 수입/수출을 위해서는 무역업자가 우선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(SSM)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
- 등록을 마친 업체는 국제통상부(MITI)에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함. 말레이시아는 모든 수출 수입 규정에 대해 단일 디지털 창구 ‘Dagang Net’을 이용하고 있음
- 라이선스가 필요한 물품의 전체 목록은 국제통상부 홈페이지(www.miti.gov.my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주요 제품으로는 농산물, 동물(살아있거나 도축된), 식료품, 식물 그 외 중장비나 차량 등이 포함됨
- 모든 수입 가공육류 및 가축 제품은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수의당국과 종교 당국의 검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‘할랄’ 인증을 받아야 함
- 말레이시아 내외로 물품을 보낼 때, 무역업자들은 다음 서류를 세관원에 제공해야 함
 - 세관 수출/수입 신고서
 - 상업용 송장
 - 선하증권
 - 포장 목록
 - 원산지 증명서
 - 특정 물품에 필요한 추가 허가증
- 말레이시아 관세법(수출금지) 1998에 의거하여, 관련 부처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한 물품들에는 다음이 포함됨
 - 폐기물 및 유독물(승인 부처: Director General of Environmental Quality)
 - 살아있거나 도축된 동물(Wildlife Department &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)
 - 골동품(Museum Department)
 - 보석에 사용되는 산호(Director General of Fisheries)
 - 밀가루 또는 Meslin 밀가루(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)

- 살충제(Ministry of Agriculture)
- 화학물질(Ministry of Health)
- 방사성 물질(Director General of the Atomic Energy Licensing Board)

* 출처 : 말레이시아 국제통상부

III | FTA 이행이슈 관련

(해당 없음)